

#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가 필요하다



**이윤태**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보건으로 정책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요소로 고령 인구의 증가(인구 고령화)를 지적한다. 인구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수반한다. 만성질환자 및 복합질환자 증가, 의료비 증가, 고령 가구 증가, 일상능력 제한을 받는 인구 증가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현재 6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1%이다. 2030년 1,270만명(전체인구의 24.3%)으로 증가하며, 2030년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 인구 4명중 1명은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셈이다.

**표 1. 고령 인구(65세 이상 인구) 현황**

연도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 이상 인구 비율(%)	5.1	7.2	11.0	15.7	24.3	32.3	37.4
10년 전 대비 증가율(%p)	-	2.1	3.8	4.7	8.6	8.0	5.1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현재 21.4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58조원의 36.8%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율 14%),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의료비 부담 증가 속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병원 방문 외래환자의 약 25%가 고령 인구가 조사되었고, 고령 인구의 2명중 1명은 3개 이상 복합질환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 들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17조원 흑자이다.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4조원(전체진료비의 32.4%)에서 2015년 21.4조원(전체진료비의 36.8%)으로 지속적인 증가 원인은 고령 인구수, 고령 인구의 진료일수 및 1인당 진료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1)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2030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급여정책 등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른 요소들이 함께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은 높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건강수준을 달성한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는 보건의료 체계에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표 2. 고령 인구 관련 비율(2015년 기준)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sup>1)</sup>	13.1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 비율 <sup>4)</sup>	20.6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 <sup>2)</sup>	36.8	고령 인구 중 만성질환 1개이상 보유 비율 <sup>5)</sup>	89.2
전체 병원 방문 외래환자 비율 <sup>1)</sup>	25.0	고령 인구 중 3개이상 복합질환자 비율 <sup>5)</sup>	46.2
전 생애에서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율 <sup>3)</sup>	52.4	고령 인구 중 일상생활 능력 제한 비율 <sup>5)</sup>	24.7

- 자료: 1)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201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진료비 심사실적 및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2016.  
 3) 정영호 등. 우리나라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보건사회연구. 2011.  
 4)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2015.  
 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노인실태조사. 2014.

고령 인구 증가는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급성기중심에서 만성질환중심으로 공급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시설 및 장비의 변화, 기능의 변화, 지역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지불형태 및 수가구조의 변화 등 많은 시스템 및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 즉, 기업과 정부의 부담 경감, 그리고 질병 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 고령 인구 증가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을 수 있다.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준비해야 한다. 건강한 고령화는 나이가 들더라도 성별 연령별 차별없이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적절히 유지할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up>2)</sup>

고령 인구가 증가하여도 건강한 고령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령 인구의 의료적 특성을 알아야 하고,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나라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번호에서는 “고령화 사회, 효율적 노인진료비 관리방안”을 정책현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한림대학교 윤종률 교수는 노인의료 관련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료의 특성을,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노인의료의 현황진단을 위해 노인의료비 추이 및 증가요인을, 유한대학교 남상요 교수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X

2) SNIPH(The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Healthy Aging: A Challenge for Europe. 2006.